



#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 미국 전쟁부 장관의 2026년 상그릴라 안보대화 연설



영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IISS)는 매년 싱가포르에서 세계 각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논의하는 상그릴라 안보대화(Shangri-La Dialogue)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지역 안보 주제에 대해 참가국 국방장관들이 연설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이후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참가하였고,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국방부장이 불참한 대신 중국 국방대학교 교수인 명상칭 육군 소장과 중국 외교부의 추이텐카이 전 부장장이 참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참가하여 역내 안보 정세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지난해 연설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어조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의 태평양 전략 방향을 설명하였다.

우선 지난해까지 주로 사용하던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표현 대신 ‘태평양(Pacific)’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기를 원하며, 이는 지역 안정과 억제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 접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대해 현실주의적(realistic)인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는 실용주의적(pragmatic) 접근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동맹국들은 미국의 보호를 일방적으로 받는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이 전략적 신중성(strategic prudence)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하며,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favorable balance of power)과 안정적인 균형 상태(stable equilibrium)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연설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공정성(fairness)과 상호 호혜성(reciprocity)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건설적(constructive) 관계 유지를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드럽게 말하되 큰 힘을 보유하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지향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식 외교노선을 이른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서반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GDP) 대비 약 3.5% 이상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분담에도 적극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comparative advantages)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과 공동의 목표(shared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언급하면서,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동맹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golden age)의 기준(gold standard)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모범적인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파트너십(true partnership)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주의적(pragmatic)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국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연설 끝부분에서 다층적인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태평양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Almighty God)의 축복이 미군(our troops)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표현으로 연설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번 연설이 2025년 연설과 비교하여 보다 유화적인 어조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기존 안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맹국들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려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 이미지 설명

2026년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상그릴라 안보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연설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

\* 이미지 출처 : [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

\* 내용 출처: Remarks by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May 30, 2026; Politico, LAT & NYT, May 30, 2026; Aljazeera, May 30, 2026; ThinkChina, June 3, 2026.

\*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http://www.kima.re.kr))